



**축사시설개선자금 지원
2천5백10농가에 6백32억원**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부는 축산업 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축사시설 개선자금 6백32억원을 장기저리로 용자지원키로 했다.

축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전업양축농으로 육성이 가능한 소 50두, 돼지 2천두, 닭 3만수 이하의 부업축산농가중 도지사가 선정한 2천5백10농가를 대상으로 축사시설 개선자금 6백32억원을 농어촌발전기금에서 지원키로 했다.

축사시설 개선자금은 축사의 신축·개축·증축 및 자동급이·급수·집란·착유·환기·분뇨수거 처리시설 등을 대상으로 농가당 사업비의 70% 수준인 3천5백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용자조건은 3년거치 7년상환에 연리 5%이다.

축사시설 개선자금 도별·축종별 지원내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농가수	316	180	184	398	220	199	609	243	161	2,510
지원액	9,475	5,040	5,040	9,485	6,335	6,965	9,485	8,211	3,150	63,186

축종	한우	젖소	돼지	닭	계
농가수	847	482	943	238	2,510

**자조금사업 지원
올해 3억원 배정**

-농림수산부-

지난 6월3일 농림수산부는 축산물 수입 개방 압력에 대처키 위해 생산자 단체가 스스로 자조금을 조성하여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때에는 보조금을 지원, 보다 효과적인 자조금 운영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수산부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 13조 규정에 의해 자조금사업단체를 지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돼지의 경우 대한양돈협회, 닭은 대한양계협회를 각각 선정, 지출금액의 50%를 지원하는데 금년에는 3억원을 한도로 하며 각 1억5천만원씩 지원할 계획에 있다.

**축산기자재 10종 관세를 인하
사료 주원료인 옥수수등도 포함**

-농림수산부-

정부는 관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할당 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안을 지난 1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됨에 따라 농림수산부는 그 동안 국내 양축농가의 국제경쟁력제고를 위해 수입되고 있는 축산기자재와 배합사료 등에 높게 적용중인 할당관세

인하를 위해 수차례에 걸쳐 재무부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왔는데 이번조치로 축산과 관련된 축산기자재 10개종류를 현행 10%에서 5%로 인하시켰다.

할당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을 보면 건조결속기 2종류를 비롯해 자동환기시설, 임신진단기, 가금사육용기계, 계란자동포장기 등이다. 이번 할당관세의 적용은 '92년 7월1일부터 '93년 6월30일까지 수입 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된다.

또한 수입원료의 주종을 이루는 옥수수는 현행 잠정관세율 3%에서 2%, 타피오카 3%에서 2%, 알팔파 10%에서 4%로 각각 인하 적용된다.

**축협사료연구소 출범
연구·개발기능 수행**

-축협중앙회-

축협은 축협계통사료의 생산기술 및 품질향상을 위해 축협중앙회 사료연구소(소장 김정식)를 6월17일 설립하고 연구개발팀을 소·돼지·닭 등 축종별로 구성, 각종 배합사료 생산기술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 개발하는 기능을 수행키로 했다.

이 연구소가 마련한 단계별 사료기술 연구개발계획으로는 1단계가 배합사료 생산시설 및 품질관리방법에 대한 조사연구와 선진기술 정보수집, 2단계는 양축농가 및 축협소유목장을 이용한 축협계통사료 실증사양시험과 표준배합비 작성, 실제사양시도, 오는 '94년부터 추진하는 3단계 연구개발내용은 사양프로그램을 비롯 품질관리, 사

양관리기법 등의 개발보급과 축협계통사료 제품 다양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가축방역 대책반 운영
치료보다 예방을**

-축협중앙회-

축협은 여름철을 맞아 각종 전염병을 예방, 농가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해 가축방역 대책반을 구성, 운영키로 하고 이를 위해 22일 부터 이달말까지 중앙회를 비롯 9개 도지회별 방역대책반 구성을 완료하여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각종 장비와 약품 등을 갖추고 무료방역 및 진료활동을 편다.

**'92· 1/4분기 위배사료 행정처분
방역대책에 최우선**

-부산직할시-

부산직할시는 '92년 1/4분기 사료검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검사에서는 퓨리나코리아의 총계(육계)사료('92. 3.17 제조)와 (주)동창의 어분(동창 56)이 조단백질 함량 부족으로 나타났다으며, 이화유지공업(주)의 어즙흡착사료는 휘발성 염기태질소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각각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았다.

**한국축산학회 사단법인 등록
사단법인체로 재출범**

한국축산학회가 최근 농림수산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법인설립등기를 완료, 사단법인체로 재출범했다.

**단미·보조사료 생산 증가
4월중 전월에 비해 7%**

—단미사료협회—

최근 단미 및 보조사료 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국단미협회에 따르면 4월 한달 단미사료가 4만3천2백톤, 보조사료 3백24톤이 각각 생산되어 한달전에 비해 7%가 증가 하였다.

품목별 생산량을 보면 단미사료의 경우 어분 7천9백37톤, 우모분 1백82톤, 어분흡착 9백8톤, 골분 14톤, 인산칼슘 7천6백40톤, 석회석 2만5천36톤으로 전월대비 각각 3%, 1%, 17%, 180%, 26%, 3%가 생산되었다.

반면 육골분과 육분은 지난달보다 1%, 7%가 각각 감소한 5백94톤, 1백82톤으로 집계 되었다. 또한 보조사료의 경우 향미제 1백20톤으로 지난 3월에 비해 1%, 12%가 각각 증가 했다.

축산분야 종합학술 대회

—축산학회—

한국축산분야학술협의회(의장 설동섭)는 지난 6월27일 설악산 대명콘도미니엄에서 '92년 축산분야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정기총회에 이어 각 분야(영양, 번식, 육종, 가공, 반추영양 및 축산물이용)에 대한 강의를 있었다.

농민행정 간소화

농어민 소득증대에 최우선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부는 지난 12일 강현옥장관이 주재한 14개 단체장 회의에서 향후 정치일정과 관련하여 사회안정관리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시달했다. 특히 대농어민 행정에 있어 불합리·불필요한 제도적인 관행이 있다면 이를 철저히 규제를 완화하거나 절차를 간소화하여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하였다.

양계 용어 정리

21. 개체선발(個體選抜, individual selection):

개체의 부모나 자매 등 혈연관계가 있는 닭의 능력에 관계없이 그 닭 자체능력만을 기초로 종계로서의 가치를 판단하여 선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개체선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체중이나 난중과 같이 선발대상 형질의 유전력이 높아야 하는데 만일 유전력이 낮은 산란성이나 생존율과 같은 형질은 개체선발로서는 개량선발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다.